

“생활·엘리트체육 활성화…핸드볼 부흥 이끌 것”

“전문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광주 핸드볼의 부흥을 이끌겠습니다.”

최근 광주핸드볼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여명현 광주핸드볼협회 회장(독스LED 대표이사)은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의 대중화는 핸드볼인 모두의 목표다. 종목의 전통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변화를 추구, 경쟁력을 높여 핸드볼 위상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회장은 핸드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비체육인이었다. 그런 그가 이 종목을 몸담게 된 건 사회활동 당시에 만났던 인연 때문이다.

광주 무등JC 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봉사 분야에서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회활동 중 유석우 전 광주핸드볼협회회장을 만나게 됐다. 그로부터 광주핸드볼협회를 같이 이끌어 보자는 제의를 받았고, 이에 지난 2017년부터 광주핸드볼협회 이사직을 맡게 됐다.

이렇게 체육계에 첫발을 디딘 이후 여 회장은 그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광주 핸드볼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먼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핸드볼 저변확대와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이외에 회장기배 대회를 여는 등 각종 지역 대회를 열어 학생들이 핸드볼 선수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재정지원이 열악한 종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힘썼다. 핸드볼 선수들은 매년 훈련과 대회 출전에 들어가는 교통비, 숙식 등의 경비를 본인이나 일부 부담해야 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임원들과 함께 실시일반 모금, 소년·전국체전 등 다양한 대회에서 선수들이 훈련과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금을 조성했다.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활동 편의를 높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은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대회 2위·챔피언 결정전 2위, 2022~2023 코리아리그 2위·챔피언 결정전 3위 등을 기



여명현 광주핸드볼협회 회장

8년간 협회 임원 활동

종목 저변확대 온 힘

회장기배 대회 재추진

육성기금 자체 마련

경기장 확보 등 과제

연계 육성 시스템 집중

룩했다. 매년 하위권을 면치 못했던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성과다.

또 제77회 전국종합핸드볼선수권대회 조대부중 3위·조선대 2위, 제51회 전국소년체전 조대여중 3위,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조대여중 3위·광주 효동초 2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광주도시공사 3위, 제1회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핸드볼대회 신용중학교 3위 등 각종 대회에 입상했다.

이렇듯 광주 핸드볼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광주는 기존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며 다양한 핸드볼팀을 배출했다. 일반 선수에서 전문 선수로 전향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3회까지 운



여명현 광주핸드볼협회 회장은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의 대중화는 핸드볼인 모두의 목표다. 종목의 전통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변화를 추구, 경쟁력을 높여 핸드볼 위상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했던 것이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문을 닫았다. 회장기배 대회 역시 마찬가지다. 인재 육성을 위해 대회를 진행해왔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 여 회장은 이를 재추진해 저변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연계 육성 시스템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현재 광주에는 초등학교(농성초·효동초), 중학교(조대부중·조대여중), 고등학교(조대부고·조대여고), 대학교(조선대), 실업팀(광주도시공사), 생활체육(광주다움스포츠클럽) 팀을 보유 중이다. 초-중-고-대-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뿌리인 초등

학생 선수들이 중학교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 회장은 “현재 광주에는 초등학교 두 팀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중학교로 전학할 때 핸드볼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결국 엘리트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은 이곳에서 이뤄진다. 그렇기에 협회와 핸드볼인들이 소통하는 간담회 등을 마련해 일반 학생이 아닌 선수로 전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기장 문제도 있다. 현재 광주 핸드볼 선수들은 빛고을체육관과 조대여고, 평동 훈련장 등을 이용한다. 하지만 빛고을체육관의 경우 행사가 자주 열려 이 기간 사용이 불가능하다. 조대여고 등 다른 곳 또한 전기세 등의 문제들이 있다. 여 회장은 선수들이 경기와 훈련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체육관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오는 2029년까지 광주핸드볼협회를 이끌 그의 임기 내 목표는 광주 핸드볼팀들의 대회 우승이다.

여 회장은 “학생 선수들과 실업팀 선수들이 대회에 우승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원관과 관심은 물론 좋은 선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광주도시공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위권 선수들을 확보할 수 있는 스카우트, 특별기금 등을 마련하는 방법을 논의해 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 회장은 “핸드볼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다양한 국제대회에 발탁될 만큼 세계적인 종목이다”면서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핸드볼이 자녀에게 운동을 시키고 싶은 훌륭한 종목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분도 따뜻하고 애정이 어린 시선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광주핸드볼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서 땀흘리며 우정 다진 ‘한·일 생활체육인’

‘제29회 한·일생활체육교류’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연계
축구 등 8개 종목 151명 참가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24일부터 7일간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 한국과 일본 생활체육동호인의 화합의 장이었던 ‘제29회 한·일생활체육교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일생활체육교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계기로 1997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양국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를 매개로 우정을 다지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나누기 위해 열리고 있다.

양국은 매년 상대국 생활체육대회에 동호인 선수단을 상호 초청·파견하는 방식으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일본스포츠마스터즈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이번 교류 행사는 지난 24일부터 전남 목포시 일원에서 개최된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연계해 진행됐다. 우마코시 유우키 일본스포츠협회 평의원을 단장으로, ‘2025 일본스포츠마스터즈’ 개최지인 에이베렌과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24일부터 7일간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 한국과 일본 생활체육동호인의 화합의 장이었던 ‘제29회 한·일생활체육교류’를 성황리에 마쳤다.

차기 개최지인 이시카와현 소속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했다.

교류전에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볼링, 소프트테니스, 연식야구, 농구 등 총 8개 종목에 걸쳐 151명의 일본 선수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친선 경기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양국 생활체육인간의 우정을 다졌다.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왕인박사유적지, 도갑사, 목포케이블카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산을 방문하며 지역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경기장에서 함께 땀과 열정을 나누며,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언어를 넘어 마음으로 연결됐다”며 “이번 만남이 앞으로도 지속돼 우리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서구청 최은숙, 전국펜싱선수권 ‘금메달’

여자 에페 우승…이정함, 남자 ‘은’
남·여 단체전 각각 동메달 획득도

광주 서구청 최은숙이 ‘제53회 회장배 전국남·녀 종합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들어 올렸다.

최은숙은 최근 충북 제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일부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박진주(부산시청)를 15-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은숙은 32강 김현아(경기도청)에 15-10 승, 16강 김태희(전남도청)에 15-10 승, 8강 양현모

(충북도청)에 15-7 승, 4강 신현아(화성시청)를 15-9로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박진주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펼치다 리드를 따내면서 5점 차 승리를 거머쥐었다.

지난해 동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최은숙은 이로써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광주 서구청 남자펜싱팀 이정함은 남일부 에페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정함은 32강 김승재(해남군청)에 14-11 승, 16강 김형민(화성시청)에 15-8 승, 8강 김승중(화성시청)에 15-12 승, 4강 박상영(울산시청)에

13-12 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황태현(해남군청)을 만나 박빙의 승부를 펼쳤으나 11-12, 1점 차로 석패했다.

최은숙·강영미·정지윤·김수빈으로 구성된 서구청 여자펜싱팀은 여일부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서구청 여자펜싱팀은 준결승에서 충북도청에 41-45로 졌다.

이정함·이승현·김재원·김대연이출전한 서구청 남자펜싱팀 역시 남일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서구청 남자펜싱팀은 8강전에서 익산시청을 33-29로 꺾었으나 준결승에서 울산시청에 36-45로 패배했다. 그 결과 광주 서구청 펜싱팀은 이번 대회를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마무리 지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호남대, 광주 대학 최초 ‘태권도 품새팀’ 창단

노영선 감독·선수 5명 구성…“태권도 품새로 학교 명예 높일 터”

호남대학교가 광주 지역 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태권도 품새팀 창단식을 갖고, 지역사회 태권도 저변확대와 대학스포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됐다.

호남대 태권도학과는 지난 29일 국제회의실에서 5명의 선수(박고은, 배지원, 이가영, 정우정, 조승환)와 노영선 감독으로 구성된 품새팀 창단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에는 박상철 호남대 총장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윤웅철 광주시태권도협회장, 김남용, 김재도, 이동원, 이준연 부회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이우형 부의장, 박병기 광산구태권도협회 부회장, 문부홍 광주시체육회 체육운영본부장, 김창송 호남대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균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축기를 보내 축하했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창단사를 통해 “선수들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협동심과 인내심을 길러서 대학의 명예를 드높이고,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우리 대학이 창단하는 품새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인 태권도의 정신을 계승해서 학문과 스포츠가 조화를 이루는 대학 문화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웅철 광주시태권도협회 회장이 “광주지역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품새팀 창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앞서나가기를 응원하며, 글로벌시대를 맞아 학업에도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날 호남대학교 품새단 창단에 격려금 300만원을, 광주시태권도협회는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호남대 태권도 품새팀 박고은 선수는 2024년 세계태권도한마당 5인 단체전 3위에 올랐고, 배지원 선수는 2023년 대학연맹 복식전 2위와 개인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력있는 인재다. 정우정 선수는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인전 2위를, 조승환 선수는 2022년 경희대학교 총장기 고등부 복식전 3위를 차지하는 등 이들 역시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김형훈 태권도학과 학과장은 “태권도 품새팀은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력을 요구하며, 선수들은 이를 통해 태권도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품새팀의 선수들이 향후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려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 품새는 혼자서 상대를 가상해 정해진 동작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연습하는 것으로,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호남대 태권도학과는 지난 29일 국제회의실에서 5명의 선수와 노영선 감독으로 구성된 품새팀 창단식을 가졌다.